

# 새싹편지 1월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새싹편지 2013년 01월호

## 지금 유아교육과에서는!

### 계절학기 특강 1. 유아음악교육

지난 1월 10일과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유아교육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아음악교육 특강이 가정관 시청각실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1월 10일에 진행된 특강에서는 김혜전 강사님께서 ‘유아 음악교육의 실제’를 주제로 강의해주셨다. 겨울 학기 동안 유아 음악교육에 대해 배웠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강의가 진행되어서 이해가 더 빨리 되었다. 지금 까지는 유아 음악교육을 이론으로서만 익혔다면 특강을 들으면서 실제 유치원에서 음악 활동을 할 때 어떻게 적용하고 발전시키며 유아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있는지에 대해 배운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어서 1월 17일에 진행된 두 번째 특강은 정유나 강사님께서 ‘유아 음악교육을 위한 유아 국악의 실제’를 주제로 강의해 주셨다. 앞서 진행되었던 특강이 유아 음악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강의였 다면 이번 특강은 유아음악 중에서도 유아 국악이라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국악의 기초에서부터 유아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국악을 소개하고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평소에 유아 국악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고 낯설어 접근하기 쉽지 않았는데 이번 특강이 유아 국악에 한 걸음을 내딛게 된 좋은 기회가 되었다.



### 계절학기 특강 2. 유아체육교육

1월 9일 수요일 유아교육과 1, 2학년 학생들은 우송유치원 3층 신나는 방에서 우송유치원 체육 선생 님으로 계시는 황규연 선생님으로부터 3~5세 유아들이 하는 스트레칭과 게임을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계절학기를 하면서 심신의 피로가 가득한 학생들에게 유아 체육 특강은 힐링을 선사한 계기였다. 운동과 거리가 먼 학생들이라 간단한 스트레칭에도 비명이

여기저기서 들렸지만, 비명만큼 웃음소리도 가득 찼다. 유치원 원장선생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걱정을 하셨다고 한다.

학생들은 특강을 마친 뒤 너무 재미있었고, 유아 체육 특강의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가 가득했다. 학생들의 체력상태를 보고 교수님 들께서는 학생들의 졸업인증제가 영어가 아닌 체육 활동이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한다.

## [ World Student2 ] 동영상제작을 통한 회화 익숙해지기

2012년도 겨울학기에는 ‘world student2’ 라는 영어회화강의가 개설되었다. 이 강의의 목적은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내에서 쓰이는 영어표현을 익히는 것이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새로운 상품의 아이디어를 내고 그를 홍보하기 위해 동영상과 포스터를 만들었다. 그 후 각 반에서 뽑힌 1등들을 모아 1월 25일 1시에 도서관 지하 1층에서 최종 1등, 2등, 3등을 선발하였다. 수상은 아이디어가 얼마나 창의적인지, 정보를 잘 전달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선발되었다. 이날 참가한 여러 팀 중에 유아교육과가 속해있는 팀은 5팀이었다.

그 중 박지원, 강효정, 김지선이 속해 있는 Kong팀과 양승희가 속해있는 Brilliant star팀이 수상하였다. Kong팀은 물 없이 설거지를 할 수 있는 Bubble tissue 를, Brilliant star팀은 알람을 끄기 위해 도망가는 알람을 잡아야 하는 rabbit alarm을 홍보하였다. 모든 팀의 광고 영상을 본 후 수상한 팀들에게 박수를 보냈고

그 외의 이 과제에 열심히 임한 다른 팀들에게도 힘찬 박수를 보낸 후 훈훈하게 마무리되었다.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한 수업을 통해 방학동안 배워보고 싶은 분야의 폭이 더 넓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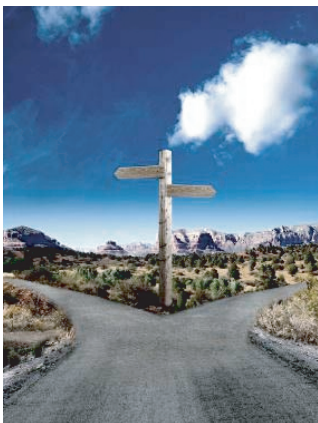


### 청춘을 위한 이야기

## 토닥토닥

## “청춘, 순수하게 빛을 발하라.”

청춘, ‘만물이 푸른 봄철’이라는 뜻으로 ‘십 대 후반에서 이십 대에 걸치는 인생의 짧은 나이’라고도 한다. 성인이 되면서 사회에 첫 걸음마를 떼고 그 사회에 적응해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누구나 방향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할 것이다. 나 또한 평범한 일상을 잘 지내다가도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 다반사이다. 그런 시기가 올 때마다 나는 내가 가던 길을 다시 다져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다. 나의 겨울학기는 다사다난하였다. 기쁨과 슬픔이 우위를 다투는 있는 중에 난 도올 김용옥 선생의 강의를 듣게 되었다.



강의에서는 우리가 반성하고 바꾸어야 할 태도에 대해 몇 가지 소개되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한국은 비판보다는 비난만 하는 사회라고 말씀하셨다. 너무 공 감되는 말이었다. 도올 선생은 이를 비판하며 한마디 해주셨다.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할 때 내가 비판을 하고 있는지 비난을 하고 있

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갈망한다. 하지만 누구나 꿈을 향 하다 보면 갈림길에 서게 된다. 우리가 대부분이 경험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인가,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나는 이 질문을 받은 도올 김용옥 선생의 한 마디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내가 번 돈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더불어 살며 사회에 아름다움과 행복을 불어넣는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한 말이였다.

청춘은 사랑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할 것이 너무 많다. 그리고 권태기, 사랑의 유효기간 등 사랑에 대해 언어적으로 정의한 표현이 많다. 그러나 도올 김용옥 선생은 이를 순수한 사랑을 언어라는 상징적 기호로 퇴색되게 하는 인간의 행위라고 표현하였다.

우리는 사랑, 건강, 비전 등 모든 것에 언어라는 것을 이용하여 그들의 순수한 의미를 흐리게 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우리의 판단과 감정과 이성도 흔들리고 흐트러지고 불안해하며 부정적으로 변질하였다. 우리 청춘은 이를 반성하여 순수하게 아름다운 사회를 바라보고 만들어가길 바란다.

## 정겨운 알프스 마을 충남 청양 얼음축제

(충남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164-1)

**볼거리** ★★★★★☆

다양한 얼음 조각과 소가 끄는 썰매를 탈 수 있는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계절마다 군밤 굽기, 쥐불놀이 등 다양한 이벤트가 있다.

**거리** ★★★★★☆

총거리 : 76.52km 예상 시간 : 1시간 35분

**비용** ★★★★★☆

입장료 : 성인 3,000  
소인 2,000

**총점** ★★★★★☆



**총점** ★★★★★☆

**볼거리** ★★★★★☆

낚시, 얼음나라, 얇은빙이 얼음이 자전거, 봅슬레이, 썰 매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지만 행사 기간이 짧다.

**거리** ★★☆☆☆

총거리 : 264.99km, 예상 시간 : 3시간 58분

**비용** ★★★★★☆

입장료 : 8,000원 (시설 당 각 대여료 추가)

## 볼거리 가득한 화천 산천어 낚시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137)

## 플코스 여행지 경기도 가평 눈썰매

(경기도 가평군 상면 깃대봉길 5-20)

**볼거리** ★★★★★☆

썰매장 자체의 볼거리 보다는 주변 관광 명소가 밀집되어 있어 가족, 연인 어떤 형태의 여행이든 가볼만한 곳이 많다.

**거리** ★★★★★☆

총거리 : 203.98km 예상시간 : 2시간 59분

**비용** ★★★★★☆

입장료 : 성인 7,700  
(스키 강좌 15,000)

**총점** ★★★★★☆



**총점** ★★★★★☆

**볼거리** ★★★★★☆

다양한 얼음 조각과 소가 끄는 썰매를 탈 수 있는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계절마다 군밤 굽기, 쥐불놀이 등 다양한 이벤트가 있다.

**거리** ★★★★★☆

총거리 : 198.85km 예상시간 : 2시간 54분

**비용** ★★★★★☆

입장료 : 6,000  
(허브 힐링센터, 허브펜션 이용요금 별도)

## 동심으로 떠나는 여행 경기도 포천 산타마을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517-2)

눈과 함께 겨울방학 추억 만들기  
“눈송이” 눈썰매

## 우송유치원 소식

### 유치원 신입생의 유치원 탐방

1월 17일 목요일 오후에 신입생 유아들의 우송유치원 탐방이 있었다. 부모님과 함께 아람반 교실을 둘러보며 종이컵 인형 만들기, 밀가루 점토 놀이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였다. 더불어 부모님은 책보는 방에서 원장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탐방과는 다르게 스스로 맛있는 방으로 이동해 간식을 먹어보기도 하며 자신이 먹은 그릇을 정리하기도 했다. 선생님과 함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노래를 부르며 나의 이름을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친구의 이름을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유치원에서 함께 생활할 친구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유치원에서 즐겁게 생활할 준비를 해나가는 유아들의 모습에 교직원 모두 흐뭇해했다.



### 우송유치원 계절학기

우송유치원에서 겨울 계절학기를 진행했다. 5세 유아들은 <나만의 프레임에 담은 세상>에 관한 특강을 진행했다. 카메라 사용방법을 알아본 후 우송대 교수님을 초청하여 사람과 사물에서 표정을 찾아 사진을 찍는 방법을 배웠다. 서로 찍은 사진을 보며 다른 사람의 표현과 관점을 알아보았다.

3, 4세 유아들은 <흙으로 만든 예술, 도자기> 특강이 있었다. 우송정보대 교수님을 초청하여 흙점토를 탐색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보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해보았다. 유아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여 다른 사람의 작품도 감상하고 친구의 작품에 꽃을 선물해 주며 마무리했다.



### 만드는 사람들

담당교수 : 성원경 교수님

학 생 : 김진희

김민아 이다영 이정현

김유현 김지윤 박지원

